김호기의 '사회의 눈'

비관 속의 낙관

어느새 달력이 한 장만 남았다. 2014년도 이렇게 저물어간다. 저물어가는 한해의 시간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남긴다. 돌아보면 올 한해는 분노와 불안의 나날로 기억될 것이다.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가 분노를 안겨줬다면,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와 정치, 사회는 불안을 가중시켜 왔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비관적일 때 비관을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사회를 연구하는 나와 같은 이들에겐 매우 무거운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비관을 감추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비관을 과장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또 구성하고 있는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올바로 인식할 때에만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위기란 위험한 시기를 말한다. 그리고 위험은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학에서 널리 알려진 위기에 대한 정의는 이탈리아 정치사상가인 안토니오 그람시에 의해 주어진 바 있다. 그람시는 과거의 것이 죽어 가는데 새로운 것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위기로 이해했다.

그람시의 위기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여러 사람들에 의해 쓰여 왔다. 전체 사회를 놓고 볼 때 그람시가 말하는 위기가 최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시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기는 경제사회와 정치사회에서 모두 관찰된다. 경제사회의 위기는 다시 시장 안의 분배 위기와 시장 밖의 재분배 위기로 나눠 볼 수 있다. 갈수록 구조화되는 양극화가 분배 위기를 보여준다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삶은 재분배 위기를 증거한다.

경제사회의 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2010년 희망버스 행진과 무상급식 논란으로 촉발된 복지국가 논쟁으로 나타났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의 역량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으로 지칭되는 일본 경제와 유사해지는 경향을 드러냄으로써 소비를 포함한 국민 다수의 심리마저 크게 얼어붙고 있다.

정치사회의 위기는 대표성의 위기다. 선진화된 경제적·사회적 구조를 갖기 위해선 정치사회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로 대변되는 정치사회는 새로운 규칙과 법률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오지 못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구축이 경제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국민 다수가 이러한 방향에 동의한다면, 정치사회가 이러한 의사를 대변하고 대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정치사회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불만과 불신, 때로는 환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제와 정치의 이러한 이중적 위기는 시민사회의 활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공론장과 비정부조직(NGO)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의 활력이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민주화를 선도할 수 있었던 것도, 1997년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활기찬 시민사회'에 있었다.

하지만 이 활기찬 시민사회도 정치적·경제적 위기가 맞물려 '불안의 시민사회'로 변화돼 왔다. 소수의 상층을 제외하고 다수의 계층과 세대에게 모두 자기 삶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우울한 전망을 안기는 이러한 불안은 불신을 가중시키고, 다시 예각적인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풍경이 내가 품고 있는 비관의 실체다. 과연 어디서 새로운 낙관을 일궈내야 할까. 그 희망의 단서가 여전히 정치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정치가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임무를 자각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도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 문제는 여전히 정치다. 비관 속의 낙관을 모색할 수 있는 정치, 그런 희망의 정치, 자기 계몽의 정치를 여전히 기대하는 이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 정치사회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종교칼럼

소록도 벽돌공장 이야기

김 연 준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록도본당 주임신부

고흥군 소록도에는 이곳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리는 벽돌공장터가 있습니다. 그곳이 저주의 땅이라고 회자되어 지금까지 내려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1933년도 소록도병원의 4대 일본인 원장 수호는 당시 1200명이었던 원생의 인원을 3000명 이상 수용 가능하도록 벽돌 제조 공장을 계획하고 소록도에 벽돌공장을 세웁니다. 초기에는 중국 기술자들이 와서 기술 전수를 해주었지만 본격적인 일은 모두 이곳 소록도 환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초창기에는 최초의 개화된 건물에 대한 기대와 우리의 힘으로 집을 짓는다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초가집과 나무로 된 일본식 집만 존재) 노동에 대한 보수도 많지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한센환우들로부터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중일전쟁(1937년) 때부터입니다. 병원재정의 많은 부분이 전쟁비용으로 들어가게 되자 환자들의 노동력으로 일정 부분을 충당하게 됩니다. 즉 벽돌공장에서 생산한 벽돌을 팔아서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노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입증대를 위해 1년 총생산량을 할당하여 소록도에 있는 마을별로 분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공사가 무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흙을 다져 가져와야 했습니다. 환자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많은 양의 나무를 해 와야 했고, 그것들로 3일간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빠른 생산을 위해 식지도 않은 것을 가마에서 꺼내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각이 없던 손에 더 큰 화상을 입게 되고 환우들의 병은 이 벽돌제조과정에서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고된 일을 견디지 못하거나 일을 하지 않고 반항하면 어김없이 감금실(소록도 감옥)에 갇혔고, 출소하면 바로 강제로 단종수술(정관수술)을 받았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벽돌을 생산하면서 환자 병신도 같이 생산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록도에서 탈출하는 환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바다로 탈출을 시도하다 잡히면 더 혹독한 일을 당했고, 수영을 하지 못해서 죽은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소록도 벽돌공장터는 '저주받은 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환자들은 이곳을 쳐다보기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벽돌공장의 굴뚝자리에 십자고상이 서 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부르던 벽돌공장터와 십자고상은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상징이 지금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곳 모든 환우들도 위로를 받습니다. 자신들의 천벌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은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록도의 벽돌공장터는 특별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기 고

학습된 무력감

박 성 수
전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영국의 인류학자 셀리그만(Seligman)은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을 개의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배구 네트를 가로로 뉘어서 매달아 놓고 그 위에 개를 올려놓으면 네다리 모두가 밑으로 빠지고 몸통만 배구 네트에 걸쳐지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개의 엉덩이에 전기쇼크를 주면 처음에는 개가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못 빠져나가게 된다. 계속해서 전기쇼크를 주어도 몸부림만 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개는 체념하게 되고 전기쇼크를 받으며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할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개를 땅위에 내려놓고 다시 엉덩이에 전기쇼크를 가해도 전기쇼크를 견디며 도망가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학습된 무력감'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실패를 거듭할수록 "나는 안돼"라고 그 실패를 내적으로 귀인해 절망감과 수치감을 가지게 된다. 아무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 도움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과제를 수행하려는 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

학업성적이 떨어진 우리의 아이들이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대로 어려운 환경을 딛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점점 그 믿음에 대한 신뢰가 희미해짐을 느낄 수 있다. 왜 그럴까? 교육환경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탓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아이들이 이러한 양극화에 희생양이 되어 타고난 천성을 계발하지 못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기성세대들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교육제도, 기회균등, 사회의 평판, 부모의 경제력 등은 여기서 논외로 치더라도 혹시 가정이나 학교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학습된 무력감'을 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시키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타고난 자질도 없고 흥미도 없는 일에 일생을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자.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타고난 천성대로 살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천성을 마음껏 펼쳐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소질과 특기, 흥미, 취미, 관심분야 등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며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를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금쪽같은 우리의 아이들이 타고난 천성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교직자들은 학생들의 천성을 찾아주고 계발하여 주는 일이 사명인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타고난 천성을 계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대형사고 위험 높다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은 자동차, TV,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다. 국내 인구 7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페이스북 가입자는 13억 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톡 국내 가입자는 약 3700만 명이며 하루 평균 60억 건의 대화가 오가고 있다. 이렇듯 스마트폰의 저변 확대는 생활의 편리함과 활력소는 물론 인간의 삶의 질 자체를 윤택하게 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운전 중이나 보행 중 사람의 고개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사고의 위험을 높였고 손목터널증후군, 거북목증후군, 안구건조증 등 각종 증후군과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한눈을 팔다가 발생하는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집중해서 걷다 보면 시야가 10% 정도로 좁아지고 청각 능력도 50% 이상 떨어져 그만큼 사고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국 스마트폰 사용자 1000명중 60%가 거리를 걷다가 스마트폰으로 게임, 인터넷, 문자 메시지 등을 한 적이 있고, 23%가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충돌 경험이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지하철역에서 한 청년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다 다리가 출입문에 낀 경우를 보았다. 지하철이 출발하는 순간 겨우 다리가 빠져 위기를 모면했지만 하마터면 큰 불행으로 이어질 뻔했다.

논어 선진편(先進篇)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고사가 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뜻이다.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여 대형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최현구· 경기도 안성시

社 說

한빛원전 이제 부실 자재까지 사용하다니

한빛원전을 비롯한 국내 원전이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 폐기한 부실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다시 원전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본보에서도 수십 차례 지적하고 있지만 자고나면 원전의 크고 작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이제 원전 안전에 대한 불감증마저 걸릴 지경이다.

문제의 이 자재는 '인코넬 600'이라는 합금 소재로 증기발생기와 원자로 헤드에 사용되는 원전의 핵심 설비이다. 하지만 고온·고압의 염류에 의한 부식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무려 40년 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소재를 원전에서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원전은 영광 한빛원전 1~6호기를 비롯 모두 합쳐 23기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이 가운데 한빛 3~6호기 등에서는 이미 균열이 관측되고 있으며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안전하다며 그린피스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국내에서 이미 총 12차례의 '인코넬 600'과 관련된 사고 및 고장이 발생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소재의 위험성이 알려져 강화된 재질인 '인코넬 690'을 세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 새로 원전을 건설하면서도 버젓이 이 자재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늦게나마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원전 당국은 이 부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단행하고 즉시 교체작업을 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해 헤드 균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빛원전 3·4호기의 가동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교체 비용이 천문학적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 부품공급사에 책임이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대형사건·사고만 터지면 국가 예산, 즉 국민의 혈세로 메우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올해도 하위권에 머문 광주·전남 '청렴도'

광주시와 전남도의 청렴도가 올해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의 청렴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위, 전남도는 지난해와 같은 13위에 그쳤다.

청렴도는 권익위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공무원과 민원인,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25만3819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광주시의 청렴도는 지난 2011년 4위에서 2012년 8위, 2013년 10위, 올해 12위로 해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2011년 15위에서 금년에 13위로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0위, 전남도교육청은 9위에 머물고 있다. 또 기초단체 중 광산구와 신안·고흥군 등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비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고질적이고,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자체는 비리 적결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고, 전남도교육청도 올해 고위공직자 청렴도를 평가하는 등 비리 적결에 나서고 있지만 약발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비리 실태에서 보듯 수법이 대범해지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일탈의식도 문제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비리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게 큰 원인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비리 공직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영구 퇴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정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비리 근절은 있을 수 없다.

無 等 鼓

봄날은 간다

한 겨울에 봄 이야기다. 가요 '봄날은 간다'는 정말 명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노래에 얽힌 특별한 사연 없이도, 많은 이들이 이 노래를 듣거나 부르면 까닭없이 울컥해 진다고들 한다.

보름 사이에 '봄날은 간다'를 두 차례 라이브로 들었다. 11월 중순 광주시립극단공연 현장이 첫번째였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려준 작품 '나의 살던 고향은' 마지막 부분에선 눈물을 쏟는 관객들이 많았다. 저승으로 떠나는 자, 이승에 남는 자. 제 갈길을 묵묵히 가는 이들의 모습이 아련했다. 연극이 끝나고 암전. 재즈 밴드의 라이브 연주로 '봄날은 간다'가 계속 흘렀다. 남성 보컬리스트의 음색은 특별했고, 객석에선 긴 침묵이 흘렀다.

지난 2일, 한 음악회에서 들은 '봄날은 간다.' 피아니스트 이상록이 편곡한 아릿한 피아노 선율이 먼저 흘렀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소프라노 유형민의 노래가 시작되자 모여 앉은 이들은 저마다 상념에 빠졌다.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황재형 작가 초대전 개막식에서 장사익이 부르던 '봄날은 간다'도 기억났다. 더불어 황 작가의 대표작 '아버지의 자리' 속 눈망울도 떠오르고. 화창해서 더 슬펐고, 영원히 잊을 수 없게 돼버린 '2014년 봄날' 역시 지나갔다.

가수 백설희가 처음 불렀던 '봄날은 간다'는 1953년 발표됐다. 작사가 손로원이 지은 노랫말에 '신라의 달밤'의 박시춘이 멜로디를 부쳤다. 손씨가 전하는 가사와 얽힌 이야기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손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다. 장롱 속에 넣어둔 연분홍 한복을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입겠다는 말이었다. 작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가사를 썼다고 한다.

'봄날은 간다'는 이미자·배호·조용필·나훈아·장사익·한영애 등 수많은 가수들이 다시 부르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몇년 전 '시인세계'가 시인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최고 애창곡으로 꼽히기도 했다.

많이 알려진 1절 가사 대신 2절을 적는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노새 짤랑대는 역마차 길에/ 별이뜨면 서로 웃고 별이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나즈막이 흥얼거려 본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